

도로 공사로 사라지는 '대흥사 빗나무' 이식해 추억한다

확포장 구간 50년 수령... 18주 나무은행 등 옮겨 명맥 이어 수목표찰에 이력 정보... 향후 제2스포츠타운 등 재이식 방침

도로 확포장 공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해남 대흥사 빗나무길의 나무 일부가 새로운 자리로 옮겨 심어졌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읍-대흥사간 지방도 806호 선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도로변 빗나무 18주를 시험 이식해 관리한다. 환경과 생육상태, 규격, 구간별 다양한 상황에 맞춰 시험 굴취한 수목은 마산 상등 나무은행에 8주, 해남읍 북평리 생활자원처리시설에 9주, 황산 옥동초 능동길 치유숲에 상징수 1주가 이식됐다. 이식된 나무는 월 1회 전기저항검사를 통해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수목표찰을 제작해 대흥사 빗나무길에서 이식된 나무임을 알리고 있으며, QR코드로 접속하면 과거 사진과 이식 당시 사진과 처방전, 전기저항검사, 저항기록드립조사 등 정보를 볼 수 있다. 나무들은 향후 제2스포츠타운과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로 재이식해 메모리얼 가든(기억 정원)을 조성해 빗나무길을 추억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해남 대흥사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471억원을 투입, 5.1km를 시설하는 공사로 2027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구간내 식재된 빗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전남도에 일부 구간 선로 변경을 검토 요청한 상황으로, 내년 봄 추가 이식과 함께 굴취가 불가능한 상태의 나무들에 대해서는 제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거 수목에 대해서도 톱밥, 우드칩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빗나무를 추억할 수 있는 목공예로 제작해 전시와 보관 등도 고려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대흥사 빗나무길 빗나무는 수령이 40~50년 된 노령목으로 학술적으로 이식 활착률은 현저히 낮지만, 역사를 간직한 빗나무길을 기억하고 지키고자 최대한 이식하려고 한다"며 "제거목도 다양한 활용을 통해 빗나무를 기억하고 추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황산 옥동초 능동길 치유숲으로 옮겨진 대흥사 빗나무. <해남군 제공>

광주시민 누구나 완도해양치유센터 20% 할인

완도군-광주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협력

완도군은 광주시와 완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우철 군수와 강기정 시장은 완도가 보유한 청정한 해양환경과 비교 우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건강 증진 활동인 해양치유가 광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2단계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제공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완도해양치유센터 전체 이용객 중 광주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더 많은 광주 시민이 해양치유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광주 시민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지속해 확대하고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광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

의 테라피 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 해양치유 시설로 지난해 11월 개관 이후 5만 4000여명이 다녀갔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에 '1'이 들어가는 사람은 평일 모든 프로그램을 2월 말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월 말까지 남녀 커플이 함께 센터를 이용하면 1명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중·고등학생은 평일에 기본 프로그램을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위기 가구에 최대 500만원 무담보 대출

긴급 생활자금 소규모 대출 '천사펀드' 다음달 시범 운영

영암군이 긴급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소규모 대출을 해주는 영암형 사회적 금융 프로젝트 '천사펀드'를 내년 1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펀드는 무이자·무담보·무보증의 3무(無)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군민이 영암군에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군은 올해 9월 영암신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암지역네트워크와 천사펀드 업무협약을 했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 운영 방안 정비를 마쳤다. 영암에서 30년 이상 고구마 농사를 짓고 유통업을 하는 김의준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영암군청을 찾아

영암군 천사펀드 1호 전사 후원금 기탁식

일자 2024. 12. 23. (월) 10:00 장소 군정홍보실 영암

천사펀드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출연했다. <사진> 지역네트워크 블로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영암군 천사펀드에 출연한 개인과 단체는 영암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무안군 긴급 민생안정대책 지역상품권 100억 추가 발행

무안군이 경제침체 극복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으로 무안사랑상품권 추가 발행하고 구매한도를 높인다. 무안군은 예비비 100억원을 투입해 무안사랑상품권 100억원(지류 30억원, 모바일 7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할인율 10% 적용과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판매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12월에 무안사랑상품권 50만원을 구매했어도 20만원을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군은 이번 추가 발행과 한도 상향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 촉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무안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군민 모두가 경제 부담을 덜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으로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해남군, 기부자 37명 명예의 전당 헌액 50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금·장학사업기금 기탁자

2024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헌액식

2024. 12. 19. (목) 해남군청 대회의실

지난 19일 해남군청사 대회의실에서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열렸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올해 해남군에 장학사업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 37명을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증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남군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은 지난해 3월 해남군청사 2층 역사관에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헌액 대상은 해남군 고향사랑기금과 장학사업기금 누적 기탁액 500만원 이상을 기탁한 개인 및 단체이다. 3000만원 이상은 실버 기부자, 1,000만원 이상 브론즈 기부자, 500만원 이상 프레스티지 기부자 등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소중한 시간과 기부금을 들여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해가신 마음처럼 잘되지 않는 일 중에 하나라며 "기부자 한분 한분의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새겨 전 군민과 함께 기억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1004섬 195개 '쉽의 미학'

신안군 기념 의자 기증 릴레이, 6개월여만에 195개 모여



신안군에서 진행 중인 '1004섬 기념 의자 기증 릴레이'가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보이며 주민과 공무원, 사회단체장 등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기증 릴레이로 23일 현재까지 195개를 모았다. 기증된 의자들은 주요 정원, 관광지, 선착장 등 볼거리가 많은 다양한 다중 공간에 설치해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이 쉬어가는 쉼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릴레이는 늘 바쁘게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문화 그리고 쉽이 주는 공통 의미 휴식을 지역민들에게 주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환기 작가의 에세이 '수화'에 나오는 '가로수 그늘마다 시민의 걸상이 놓이길 바란다'라는 바람처럼, '녹화운동과 병행한 벤치 운동'으로 확산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 추모공원 화장장 민간 수탁자 공모

다음달 6일까지

목포시가 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사진) 운영을 위한 민간수탁자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는 내년 1월 6일까지 14일간으로 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의 우수 타 기간이 31일로 만료되고 지난 19일 목포시의회에서 수정해 재정정한 '목포 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 위탁 추진동의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를 통과한 동의안은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직영 등을 전제로 한 다양한 운영체제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맞춰 운영방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시는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되면 내년 2월 초 화장장 재개장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화장장 시설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와 시설물 내구성 저하에 따른 가능보강 점검, 전문 화장장 기술인력 확보 등에 따라 정상적인 화장업무 개시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새로운 위·수탁 업체 선정에서 인수·인계 시(소요 기간 42일)까지 화장업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무원과 일부 운영업체를 투입해 비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화장장(승화원)의 정기점검을 위해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 임시휴무를 한다. 다만 봉안당(추모의 집)은 신정 당일에도 정상 운영돼 추모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